

김용태

가족치료학 박사, 헛볼트리니티 신학대
학원 상담학 교수

IMF 경제위기와 한국 가족, 그 리고 미래의 방향

현재 한국은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량실업, 경제체질개선, 국민들의 의식전환, 불확실한 미래 등등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한국인들은 경험을 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불안은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로 인해서 생계에 대한 절박함에 직면을 하고 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이 가족들의 마음을 죄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노와 허탈감, 혹은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기분들이 가족들의 상호작용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소년, 소녀 가장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간에 불신이 늘어나고 잦은 싸움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을 유지하는 근간은 곧 부부관계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상대적으로 가족은 안정성을 갖고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약하고 병들었다면 작은 스트레스나 위협 요소에 쉽게 가족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가족이 와해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외부의 불안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내적 매력(Internal Attractiveness)과 외부 압력(External Pressure)이다. 내적 매력이라고 하면 부부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서로 끌리고 좋아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내적 매력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많이 있겠지만 부부 친밀성이 그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압력이라고 하면 부부간 관계를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압력이다. 자녀들의 미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시부모와 친정 식구들의 압력, 친구나 친척들의 눈총 그리고 이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가리켜서 외부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친밀성과 외부 압력은 적절한 정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서구사회에서의 높은 이혼율을 이해하려면 외부 압력의 부재현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내적 매력에 의해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서구 사람들의 노력은 쉽게 좌절되고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에 파국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사람들의 부부관계는 오랫동안 외부압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면적으로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남의 눈총이 두려워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부부들이 많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혼율이 증가하는 사실은 한국사람들의 부부관계에서도 외부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부간의 내적 친밀성은 부부의 상황과 연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

라서 외부의 압력이 없이 내적 친밀성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반면에 부부가 내적으로 서로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생산적이고 성장을 위한 부부갈등이 아닌, 서로 상처를 입히고 절망으로 밀어 넣는 파괴적 부부 갈등이라고 생각된다. 부부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적 친밀감과 외부압력을 둘 다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부 압력도 강하고 내적 친밀감도 강한 부부관계가 가장 이상적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 압력에 의해 대변되는 안정성과 내적 매력에 의해서 대변되는 친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부부관계는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도 서구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부부관계의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개인주의라는 쌍두마차에 의해서 전통적 한국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가족은 소가족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핵가족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점점 나이는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괴리가 커지고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배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부부의 삶이 두 사람간의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일에 친구 혹은 친척들의 개입이나 간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는 친정 부모나 시대 부모들의 개입이나 간섭도 많이 줄어들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과 삶이 더 이상 커다란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 보다는 부부 두 사람의 관계라는 미시적 의미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받쳐줄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지지 세력을 잃고 있다.

한국인의 부부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부부간의 안정성을 잃고 있는 데다가 아직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안정성과 친밀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태에서 맞

은 경제 위기는 한국의 가정을 와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외부적 스트레스는 친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키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레스를 다룰만한 명분과 내적인 힘을 동시에 상실한 부부관계는 당연히 와해의 수순을 밟게 된다.

안정성과 친밀성이 떨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오직 하나의 명분은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부부관계는 양자간에 직접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유지되기보다는 아이를 통해서 유지된다. 이를 가리켜서 보우웬이라는 학자는 삼각관계(Triangling)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두 국가간에 관계가 불편하면 제 삼국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듯이 부부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부부가 아이를 통해서 겨우 가족체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은 이러한 최소한의 가족유지 기능마저도 앗아가게 된다. 아이로 인한 명분은 실직과 같은 엄청난 고통 앞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즉 가족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명분도 경제위기와 같은 거대한 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명분은 주로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여서 세상에 생명을 갖게 한 어머니들은 아버지보다는 이러한 명분을 더 가지게 된다.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서 남편은 이미 가정에서 기능을 상실하고 아이로 인한 명분은 아내 혼자서 가정의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부담과 고통을 안게 된다. 엄청난 고통과 불안을 견디지 못한 아내들이 마지막 명분인 아이들을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IMF시대의 한국가정에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한국의 가족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부부간의 친밀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그 하나이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또 다른 하나이다.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일이 된다. 부부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외적 압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외적 압력을 만

들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서 부부체제의 안정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둘째로 상담체제를 만들어서 부부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부부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건강한 의미에서 부부갈등을 소화하는 방법을 상담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적으로 볼 때 가족사역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가족사역을 통해서 가족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이야말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의 외적압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교회는 큰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큰 가족으로서 교회는 부부 혹은 가족들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충족하며 부부갈등이 있을 때 부부가 무조건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압력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한 부부와 다른 여러 부부들이 서로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단체를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듯이 부부가 다른 여러 부부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여러 부부들과 친숙한 관계를 사회 망(Social Network)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교회는 부부의 사회 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망 구축은 요즘과 같은 IMF시대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다른 부부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경제적 필요들도 어느 정도로는 채울 수 있기도 하다.

한국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내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내적 노력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친밀성을 증진하는 일을 말한다. 친밀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먼저 부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 전통적 의미의 부부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했다기 보다는 주어진 역할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부부관계였다.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했고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집안 일을 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그것으로서 부부관계는 유지되었다. 현대의 시대에는 주어진 역할만을 충실히 하는 방식의 부부관계가 아닌 서로 친밀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전통적 부부관계의 역할은 서로 얼마든지 바꾸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서로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곧 시대의 변화를 의미한다. 핵가족으로 가족 제도가 변화하고 개인주의적 사고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구분된 역할보다는 서로간에 협동하고 이해하는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상호작용을 활발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 혹은 여러 가지 관계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중요한 요인들로 부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서로 가꾸고 활용하는가 하는 점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특성들이다.

부부가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작은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부부간의 친밀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 된다. 물론 대화에는 언어로 하는 대화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대화도 있고 감으로 하는 대화도 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분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들, 서로 욕구가 충돌할 때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방법들, 서로 이해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감정통제 능력들, 다른 생각과 다는 행동방법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과 덕목들을 갖추는 일은 부부가 서로 간에 친밀성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 데 없어서

는 안될 요인들이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부가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생각들을 가지고 충돌을 할 때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행동방법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를 통해서 맑은 마음과 영적인 지혜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꾸준히 길러야 할 것이다. 부부갈등을 통해서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의 범주를 넓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의 범주 속에 자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정성과 친밀성을 동시에 갖출 때 가족은 건강하고 강한 체제가 된다. 웬만한 스트레스가 발생해도 이를 견디고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위기는 그 자체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가족체제를 붕괴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IMF를 통해서 많은 한국가족들의 붕괴는 곧 한국가족들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단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한국 가족은 건강하고 튼튼한 가족체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8